

광주 민중 항쟁 이후의 문학과 문화

- 젠더를 축으로 한 다시 읽기의 정치학

김양선*

차례

1. 서론
2. 각기 다른 기억들
3.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의 구축물과 증언의 적실성
4. 결론

본고는 '공동의 기억'에 의거한 '집단적 정체성'의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광주 항쟁 관련 문학/문화 텍스트를 보고자 한다. 특히 집단적, 개인적 트라우마가 지닌 젠더적 특성, 기억과 그것의 서사화가 지닌 젠더적 성격은 광주항쟁 문학/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유효한 관점이 될 수 있다.

광주 항쟁 관련 문학/문화 생산물들이 일종의 대항 기억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의 기억 투쟁의 과정에서 '젠더'는 부재한 것, 존재한다 하더라도 형제애에 기반한 남성 공동체의 투쟁 의식이나 부채 의식을 극적으로 재현하는 데 전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항쟁 기간 동안 그리고 항쟁 이후 여성의 역할과 경험을 축소하거나 말하지 않기, 살아남은 자(남성)의 부끄러움, 수치심을 '누이' 혹은 '어머니'로 형상화하는 남성들의 기억의 방식은 젠더정치학과 관련이 있다.

* 한림대 기초교육대학 강의 조교수

따라서 국가의 공식 기억에 대항하는 항쟁 관련 기억들 역시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만들어진 전통’임을 인정하고,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성 자신의 기억이 가장 실감있게 구현된 부분은 증언자료집에 실린 증언물들이다. 광주항쟁 증언자료집 속의 증언 주체인 여성, 소설 속에 그려진 여성들의 경우 투쟁 일지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의 전개양상, 항쟁의 종합적인 면모보다는 주변적인 상황, 일상성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더 잘 기억하며, 이 일상적인 것 중심으로 증언을 한다. 이 집단적인 증언 자료들은 여성 피해자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한다.

특히 몸의 기억을 언어화하는 일은 여성이 진술하는 적극적인 대항기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항기억으로서의 몸의 기억은 증언물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가르는 주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항쟁과 항쟁 이후에 대해 여성으로 말하기는 남성중심의 형제애의 발현으로 항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을 대항기억을 주도한 ‘집단정체성’의 장으로 불러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핵심어 : 대항기억,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 광주항쟁 증언물, 몸의 기억, 여성으로 말하기

1. 서론

5.18 광주민중항쟁을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논의는 문학/문화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그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 이론이 확산되면서 몇몇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온 바 있다. 장하진의 『5.18과 여성』은 광주민중항쟁의 기존 연구성과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¹⁾하면서 여성들의 활동과 의미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광주항쟁의 성격인 일체감과 나눔의 시민정신이 여성 특유의 속성인 보살핌의 윤리와 관련이 있다거나 취사, 헌혈, 모금, 간호 등 여성들의 활동을 '사소한'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공적 역사가 배제한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시각이 그것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의 『여성, 주체, 삶』 역시 5.18민중항쟁 관련 연구에서 여성이 배제되었거나, 또는 여성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의 여성, 어머니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필자들의 글은 25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여성들의 활동과 경험을 현재화하고 재구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작업은 본고의 기본적인 문제의식 및 방법론과도 관련이 있다. 그 중 강현아의 『5.18 민중항쟁 역사의 양면성 : 여성의 참여와 배제』은 5.18 민중항쟁 기간과 기간 후로 나누어 여성이 항쟁과 관련된 공식적인 정치적 조직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배제된 점, 여성들 내부에서도 계층에 따라 차별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한 점을 밝히고 있다.²⁾ 이 글의 필자 역시 여성이 타자가 아니라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여성들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³⁾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광주 민중항쟁 당시 여성의 활동이랄지 역할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우리는 대부분 시민군들에게 김밥을 나누어주는 아줌마들, 도청의 취사부, 헌혈, 임신부나 여학생의 잘려진 유방, 전춘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선언문을 낭독하던 여성 등을 떠올릴 것이다. 이에 비해 남자들은 총을 들고 무장투쟁을 이끌거나 차량 시위를 벌이는

1) 장하진, 『5.18과 여성』,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편, 『5.18 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2001.

2) 강현아, 『5.18 민중항쟁 역사의 양면성 : 여성의 참여와 배제』, 『여성·주체·삶』,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 2000, 166쪽.

3) 강현아, 위의 글, 178쪽.

모습 등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차이는 5.18 광주 민주항쟁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평가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⁴⁾ 그리고 이와 같은 이미지는 판화와 다큐멘터리, 증언록, 소설 등 일련의 문화생산물에 의해 구축된 것이기도 하다. 이 문화생산물들은 우리의 시각과 청각 등 감각에 호소하면서 일종의 고정된 이미지를 산출해 왔다.

본고는 광주항쟁 문학/문화 생산물들을 젠더의 관점에서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광주 항쟁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논의한 연구에서 여성은 항쟁 이후 배제되어 왔거나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담론화되어 왔다. 여성은 국가폭력의 피해자, 수난자로 재현되어 왔으며, 남성들에게 부채감과 연민, 적에 대한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그 주변에 깔려 있는 것이 젠더정치학이다. 광주 항쟁을 다른 문학/문화 생산물들이 의미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1980년대 문학/문화를 이전 시기, 이후 시기와 구별짓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80년대 한국 사회의 경우 다름아닌 사실확인의 차원에서조차 가장 예민한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이른바 광주사태의 진상문제다”⁵⁾라는 백낙청의 지적은 이와 같은 광주 항쟁 문학/문화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쟁 25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광주 항쟁 문학/문화, 나아가 1980년대 문학/문화는 젠더의 측면에서나, 비평과 작품생산 간의 괴리라는 면에서나 심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생산물들이 지역성을 넘어서지 못했

4) 장하진, 앞의 글, 442쪽.

5) 백낙청,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 『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비평사, 1990, 44쪽.

백낙청은 임철우의 『사산하는 여름』, 윤정모의 『밤길』을 광주항쟁을 정면에서 소설화한 예로 들고 있다. 임철우의 작품은 광주항쟁을 ‘병리’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피상적인 민중인식, 역사의식을 보인다고 비판하는 반면, 윤정모의 『밤길』은 현장의 참상에 대한 기억과 지속되는 과업에의 의지가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다거나,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이미 박제화된 과거로만 남게 되었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실, 광주항쟁을 재현한 텍스트들은 한편으로는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집단적, 개인적 트라우마를 기억/기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역사이론에서 주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공동의 기억’에 의거한 ‘집단적 정체성’의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광주 항쟁 관련 문학/문화 텍스트를 볼 것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집단적, 개인적 트라우마가 지닌 젠더적 특성, 기억과 그것의 서사화가 지닌 젠더적 성격이 광주항쟁 문학/문화⁶⁾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접근법을 택하는 이유는 여성적 시각의 배제가 궁극적으로는 항쟁 관련 문학/문화를 풍부하게 읽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젠더화된 기억의 측면에서 읽는다면 항쟁 문학/문화를 재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6) 본고는 문학/문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문화 텍스트는 간헐적으로 언급할 뿐 문학 텍스트, 그 중에서도 소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문학과 문화는 층위를 달리 해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고의 궁극적인 의도는 개별 문학 텍스트를 정밀하게 독해하기보다는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의 다양한 구축물의 일환으로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문학 텍스트와 증언기록물은 영화, 연극, 민중가요, 회화 등 여타 문화 생산물과 동일한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대항적인 문화적 기억의 산물이다.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문화 생산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젠더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기’라는 통일된 방법론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문학 장르에 분석이 치우친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한계이다.

2. 각기 다른 기억들

가) 형자가 말을 이었다.

“도청에 끝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을 잘 기억해줘. 어떤 사람들이 이 항쟁에 가담했고 투쟁했고 죽었는가를 꼭 기억해야 돼.” “.....”
 “그러면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를... 그것은 곧 너희들의 힘이 될 거야.” (홍희담, 『깃발』, 49~50쪽)

나)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
 뽀 너의 젓가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오월가)

예문 (가)에서 인물 형자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 사항은 ‘기억’의 주체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 ‘누가 항쟁에 가담하고 투쟁하고 죽었는가’라는 항쟁의 주체 문제는 항쟁 이후에 미순 등이 부상자와 구속자 명단의 비율을 따지는 와중에 무산자계급의 비율이 71퍼센트라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서사에서는 항쟁에서 죽어간 무산자 계급을 기억하는 주체가 미순 등 여성 노동자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항쟁의 주체와 기억의 주체가 동일한 계급임을 확인함으로써 텍스트의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기억의 주체를 호명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노동자’ 중 ‘여성’이라는 성적 자질보다는 ‘노동자’라는 계급적 속성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 이 작품이 발표된 1980년대 말 민중·민족문학 진영에서 노동자 계급의 관점이 주요하게 부각되었던 것과도 모종의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기억의 주체, 기억의 주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텍스트가 생산되는 시기의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젠더화’된 관점의 개입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예문 (나) 오월 항쟁가 1절은 ‘잘라진 가슴’, ‘솟는 피’와 같은 절

단란 신체의 이미지를 직설적인 어휘로 담론화함으로써 비장감과 전투적 의식을 고취시킨다. 그런데 이런 정서는 ‘잘리워진 젓가슴’으로 상징되는 국가 폭력의 잔혹성을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희생자로 담론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이 노래는 필자 또래 세대에게는 1980년대 학생운동 현장의 대표적인 전투적 민중가요로 기억된다. 특히 광주항쟁 관련 자료집 사진이나 다큐멘터리 장면들과 오버랩되면서 노래 속 이미지들은 마치 실제로 본 듯한 사실 효과를 자아낸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이 훼손당한 몸을 지닌 여성의 이미지가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도 실제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것이 노래, 사진, 다큐멘터리물 등을 통해 반복 재현되기 때문이다. 문화적 기억의 생산물들은 단일 텍스트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처럼 서로 연동하면서 의미를 창출한다.

‘기억’과 관련된 위 예문은 관제 기억과는 상반되는 대항 기억의 양상뿐만 아니라, 주변적 기억 내부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층위들을 보여준다.

또한 이 기억들은 광주항쟁이라는 공유기억이 여성의 차원에서 어떻게 전유되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가령 예문(가)의 소설 『깃발』은 당시 민중·민족문학 계열에 의해 광주항쟁의 계급성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전략적으로 고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집단)이 주인공으로 설정되면서 젠더적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과 관련된 평문들을 보면 젠더적 관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젠더 무관심성(gender indifference)’은 대항기억 내부에서도 젠더에 따른 모종의 위계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런가 하면 예문(나)는 여성의 상징인 젓가슴이 남성적 폭력을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칼에 의해 잘려나가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당시 여러 사람들의 말과 항쟁 이후 시각 생산물들에 의해 재현된 이 장면은 기억의 주체들에게 분노와 내 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필자는 앞에서 광주 항쟁의 공식적 망각에 대항하는 기억투쟁의 양상을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의 측면에서 살펴보려는 것이 본고의 의도라고 밝혔다. 이런 본고의 의도에 비추어볼 때 예문(가)와 (나)는 서로 대비되지만 젠더정치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광주 항쟁 관련 문학/문화 생산물들이 일종의 대항 기억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의 기억 투쟁의 과정에서 ‘젠더’는 부재한 것, 존재한다 하더라도 형제애에 기반한 남성 공동체의 투쟁 의식이나 부채 의식을 극적으로 재현하는 데 전유되어 왔다. 즉 항쟁 기간 동안 그리고 항쟁 이후 여성의 역할과 경험을 축소하거나 말하지 않기는 항쟁의 사실적 기록과 기억의 장에서 결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살아남은 자 남성의 부끄러움, 수치심을 ‘누이’ 혹은 ‘어머니’로 형상화하는 남성들의 기억의 방식이다. 누이가 ‘잘라진 젓가슴’으로 이미지화된다면, 어머니는 홍성담의 연작판화 <대동세상>, ‘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민군들에게 밥을 퍼주는 보살핌과 허여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희생자’와 ‘보살피는 자’라는 이미지는 상호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싸우고 투쟁하는 항쟁의 주역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는 점, 항쟁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었던 다수의 대응방식이랄지 운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광주항쟁을 재현한 문학/문화 생산물들에는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 벌어진 젠더정치학의 수준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탈근대, 탈민족 이론들은 근대(성)과 민족의 자기 총족적인 세계가 기실 내적 모순을 지닌 것임을 문제삼으면서 그런 모순을 지탱해준 동력이 젠더정치학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피식민국의 반식민지 민족주의 역시 자기 안의 타자인 여성을 타자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안한 정체성을 보장받는 모순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성 주체가 자신의 ‘식민성’을 여성에

게 투사하는 이른바 ‘이중의 식민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점으로 광주 항쟁의 결과물들을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 광주항쟁이라는, 근대 국가의 폭력에 대항해 맞섰던 대규모의 운동 역시 근대 국가의 그것처럼 남성적인 형식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최근 탈식민, 탈주체 담론이 빚은 일종의 구조주의적, 환원주의적 오류를 되풀이하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불어서 이와 같은 구조적 동일성에 기댄 분석은 실재하는 여성의 경험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식 기억에 대항하는 항쟁 관련 기억들 역시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만들어진 전통’임을 인정하고, 그 내부 동학을 파헤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도 그 작업은 공식 기억과 ‘같이면서도 다른’ 대항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일 게다. 켄더화된 기억의 축적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은 그 동학의 한 축을 해석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켄더화된 문화적 기억의 구축물과 증언의 적실성

‘만들어진 전통’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공인된 규칙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례나 상징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관행들을 뜻한다. 전통들이 준거하는 과거는, 실재하는 것이든 발명된 것이든 늘 반복되어 고착된 관행들을 수반한다.⁷⁾ 만들어진 전통은 특정집단 및 공동체의 사회 통합이나 소속감을 구축하기 위해 기념일, 기념의례, 박물관, 역사서, 다양한 문화 생산물들을 상징적인 기제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전통의 ‘발명’은 근대 제국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근대 국가

7)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20~21쪽.

의 형성이 지체되고, 지배층의 ‘정통성’이 항상 심문을 받아 온 우리의 경우 좀더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이처럼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연속성의 발명’⁸⁾이 공식적인 차원, 지배층에서만 수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로부터 분리되기를 요구하거나, 국가에 대안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조직된 대중운동들도 만들어진 전통을 사용⁹⁾한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이었던 광주 항쟁의 경우에도 항쟁을 경험한 집단들은 자기 공동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공식 기억’과는 대별되는 ‘사적 기억’, ‘대항 기억’을 만들어 왔다.¹⁰⁾ 그 대항 기억의 구축 과정은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과는 ‘기억의 전쟁’을 수반¹¹⁾하며, 대항 공동체 내부의 소속감과 신념 등을 다지기 위해 모종의 의례, 기념비, 문학작품 등을 통해 그들만의 전통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기억의 구축은 누가, 어떤 것을, 왜, 어떻게 기억(또는 망각)하는가의 문제로 민족, 계급, 젠더, 지역 등을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있다.¹²⁾ 그렇다면 대항기억의 영역에서 기억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는

8) 에릭 홉스봄 외, 위의 책, 29쪽.

9) 에릭 홉스봄 외, 위의 책, 529쪽.

10) 전진성,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역사비평』 76호, 역사비평사, 2006 가을, 452쪽.

관제 기억이 공공기억으로 국민들에게 주입되면서, 그 밖의 기억은 사적 기억으로서 공공기억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사적 기억이 망각되기를 거부하고 활성화될 때, 그것은 대항기억으로서 공공기억에 맞서게 된다. (456쪽.)

11) 최근에는 5.18 광주항쟁이라는 대항기억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의례가 국가화, 추모제가 국가기념식으로 전환된 것, 특정 경험과 관련된 특정 장소가 기념공간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저항의 지역성, 국지성을 탈피하여 전국성과 세계성을 확보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화된,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12) 전진성, 앞의 글, 453쪽.

어떤 항쟁의 기억을 말하고, 말해 왔는가? 만약 기억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기억 주체의 의도에 따라 수정, 삭제, 첨가라는 일련의 매카니즘이 작동한다면, 그 과정에서 ‘포섭’되는 것은 무엇이고, ‘배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대항 기억의 영역에서 흔히 빚어지게 마련인 파편화되고 억압된 기억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간 광주항쟁에 대한 많은 연구는 대중의 빛나는 투쟁과 희생, 투쟁의 거룩한 대의를 극대화하는 기억을 생산해 왔다.¹³⁾ 하지만 국가의 기억에 대항하는 민중의 기억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중적 성격, 계급적 성격, 민족적 성격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으나 왜곡되고 균열되고 좌절된 기억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억을 끌어내지는 못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여성을 비롯하여 그간 배제되고 타자화된 소수의 기억을 끌어내려는 시도는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좀더 치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기억은 문학작품을 비롯한 각종 텍스트, 신화와 종교적 제의, 기념물 및 기념장소, 문서보관소 등 다양한 문화적 ‘매체’를 통해 기억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형식을 규명한다.¹⁴⁾ 5.18 광주항쟁 역시 문학 작품, 다큐멘터리와 영화 등 영상물, 기념 묘지, 기념관, 방대한 양의 광주항쟁 자료집, 르뽀와 증언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항쟁의 기억이 전승되어 왔다. 그런데 이 문화적 기억의 산물들을 살펴본다면 모종의 질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령 광주항쟁 관련 문학 작품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까지 주로 쏟아져 나왔다. 소설보다는 사건과 사건에 반응하는 주체의 즉각적인 반응을 알 수 있는 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르뽀가 나왔으

13) 좌담, 『광주20년-국가의 기억, 민중의 기억』, 『당대비평』 11호, 생각의나무, 2000, 13쪽.

14) 전진성, 앞의 글, 473쪽.

며, 소설은 시기적으로 그 뒤가 된다. 피해자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초기 재현물들의 특징이라면, 가해자/피해자의 선명한 이분법이 그 다음에, 가해자 역시 근대 국가 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인식은 맨 마지막에 나왔다. 장르와 항쟁에 연루된 주체들을 재현하는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모종의 선차성이 있고, 계열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말과 글로 이루어진 기억의 구축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도 따져볼 사안이다. 광주항쟁은 그 성격상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일어난 운동이었으며, 주체 역시 지식인이 아닌 민중이었다. 그런 만큼 주변적 존재인 여성의 삶이나 경험과 만날 가능성이 많았다. 하지만 항쟁의 경험이 여성들 스스로의 말과 글로, 증언이나 문학/문화적 재현물로 형상화된 것은 1980년대 말에나 가능했다. 소설의 경우 홍희담의 『깃발』과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가 발표된 것이 1988년, 공선옥의 『씨앗불』이 발표된 것이 1991년이니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의 증언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도 이 즈음이다. 광주 항쟁 기간 동안, 그리고 항쟁 이후에도 여성들은 기존의 성역할을 뛰어 넘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쟁이라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완결된 서사로서 총체적으로 구성하려는 리얼리즘의 욕망은 젠더화된 경험, 여성의 트라우마를 암묵적으로 부인해 왔다.¹⁵⁾ 하지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이후 달라진 사회 지형도 속에서 총체성과 리얼리즘 지향이 놓친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는 이런 사회 변화와 공명하고 대항 기억 내부의 젠더 위계질서를 문제삼으면서 나온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15)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73쪽.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의 트라우마를 읽어내고,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을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문화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망각하는 것은 권력과 헤게모니와 관련이 있고, 이는 젠더 역시 그러하다.¹⁶⁾ 요컨대 기억과 망각은 권력과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경쟁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담론적 실천행위라 할 수 있다. 그 기억과 망각의 역학 관계에 가장 극적으로 개입된 것이 여성이다. 가령 우리가 광주항쟁의 현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던 여성의 절박한 목소리이다. 그 기억의 강렬함으로 인해 다수 여성들과 관련된 기억들은 망각되기도 한다. 여성들이 항쟁의 전개 과정에서 그리고 항쟁 이후 지도부에서 배제된 것 역시 여성들의 기억과 서사가 전승되지 못한 원인이 될 수 있다.¹⁷⁾ 물론 광주 항쟁 지도부의 기억보다는 하위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증언이 기억과 망각의 역학관계를 해석하는 데 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배제됨으로써 기억을 이끌어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런 저간의 상황 역시 기억을 둘러싼 젠더정치학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으로 밀려난, 여럿한 여성들의 기억을 조합하고 재배치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16) 이상 문화적 기억에 대한 개념 정의, 그것과 젠더와의 관련양상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였다.

Marianne Hirsch, Valerie Smith, "Feminism and Cultural Memory: An Introduction," *Signs* Vol.2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Spring), pp.3~7

17) 강현아는 광주민중항쟁 초기에 민중을 선동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일을 여성들이 맡아 했지만,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 정치조직인 항쟁 지도부가 형성되면서부터 여성들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항쟁 직후 구속자나 유가족 회의 활동을 한 주체는 여성이었지만 그 후 공식적인 정치적 영역으로부터는 배제되었다고 본다. (강현아, 『5.18 민중항쟁 역사의 양면성 : 여성의 참여와 배제』, 『여성·주체·삶』,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 1990, 125~160쪽.)

마리안 허쉬에 따르면 문화적 기억의 테크놀로지는 회고와 전송뿐만 아니라 경험에 있어서도 젠더화된 패러다임을 지니고 있다. 페미니스트 서사는 그간 평가절하되고, 주변화되고, 억압되어 왔던 문화적 형상들, 기억들을 다시 위치짓는 역할을 한다.¹⁸⁾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으로 직조된 서사는 공적 기억의 서사와는 달리 세부묘사(detail)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오미 쇼어는 세부묘사는 남성적인 것에 비해 여성적인 것, 일반적인 것에 비해 특수한 것, 전체에 비해 세부를 우선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젠더화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세부묘사에 대한 관심이 여성적인 것과 연관되는 까닭은 사물이나 경험의 미세한 부분에 유의하는 마음, 그런 부분을 심미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여성의 생활과 문화에서 널리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¹⁹⁾ 가령 개인적 기억과 공동체의 기억은 음식과 연관된 여러 형식을 통해 좀더 풍부하게 결합되고 상징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²⁰⁾ 광주 항쟁 관련 소설에는 유난히 밥을 같이 나누어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시민군들의 마지막 밥, 그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여성들 등 ‘밥상공동체’의 기억은 평등과 민중의 정신이 구현된 것으로 환치될 수 있다. 『깃발』에서도 도피중인 야학선생 윤강일에게 밥과 찌개를 끓여 주고 도피자금을 보태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이다. 항쟁을 다룬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 5월은 딸기가 한창인 시기, 항쟁의 끝은 딸기가 한물간 시기로 언급되는 것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성작가의 작품은 아니지만 박호태의 『다시 그 거리에 서면』에서도 아들(혹은 남동생)을 기다리는 여성들은 “성시철의 딸

18) Marianne Hirsch, Valerie Smith, op. cit., p.19.

19) 황종연, 『탈승화의 리얼리즘-윤성희와 천운영의 소설』, 『문학동네』, 문학동네, 2001 가을, 416~7쪽에서 재인용.

20) Carol Bardenstein, "Transmissions Interrupted:Reconfiguring Food, Memory, and Gender in the Cookbook-Memoirs of Middle Eastern Exiles," *Signs* vol.28, no.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Spring), pp.355~6.

기와 오이와... 그 푸르고 시큼한 것들”을 떠올리면서도 “지 배로 내놓은 새끼들을 다 잃어버릴 지경인데 햇것 탐을 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해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초기 광주 항쟁 재현물을 관통하는 주된 정서인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은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좀더 실감있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여성들의 증언기록물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아들을 잃고 후에 유족회 회장이 된 송영도 씨의 증언에서는 모금한 돈으로 물건을 사고, “생계란 다섯 판을 머리에 이고” 도청 앞에 가서 시위대들과 군인들을 먹인 기억이 나온다.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 중 가두방송을 주도하고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는 등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전춘심의 증언에서도 항쟁 기간 동안 유일하게 아주머니들이 건네 준 날계란 두 개를 먹은 기억이 나온다.²¹⁾ 서석1동 반장으로 있었던 김경애 씨(여)나 김우곤(남)의 증언에서도 동네 주민들이 쌀을 모아 주먹밥이나 김밥을 만들게 된 경위가 자세하게 나온다.²²⁾ 이와 같은 증언을 포함한 문학/

21) 광주일고 앞 골목에서 아주머니들이 날계란 두 개를 먹으라고 주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목이 아플 때는 날계란을 먹으면 좋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튼 그 날계란 두 개가 나에게 있어서는 19일 이후의 최초의 식사였고 마지막 식사였다. (전춘심,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이광영·전춘심 외, 『광주여 말하라 : 광주민중항쟁 증언록』, 실천문학사, 1990, 40쪽.)

22) 아래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증언의 내용은 10여년이 지난 다음에도 생생하다. 그 당시 나는 서석1동 반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선배 언니의 제안으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성의껏 쌀을 가져오라고 하자 4되, 3되, 2되씩 들고 와 한 아주머니 집에서 8명의 부인들이 모여 주먹밥을 만들었다. 주먹밥을 2, 3개의 쇠대야, 라면박스 등에 비닐을 깔고 50인분 정도 넣어서 골목어귀에서 시위차량이 지나가면 ‘수고하네, 결과가 안 좋으면 어찌겠는가? 몸조심해야 되네’하면서 ‘서석1동’을 크게 외치고 주먹밥을 트럭에 올려 주었다. (45쪽.)

나는 굶고 있을 게 뻔한 그 학생들이 꼭 내 자식같이 안쓰럽기도 하고 거뒀진 쌀은 우레여관 언니가 방앗간으로 가져가 밥을 쪄왔으며, 돈으로는 김과 단무지 등을 사다가 흥운식당 안집에서 동네아주머니 10명이 모여 김밥을 만들었다. (46쪽.)

위 증언은 『여성, 주체, 삶』을 참고한 것이다.

문화 생산물들은 여성들이 항쟁에 참여한 경험에서 주로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보여준다.

진술한 바와 같이 여성 자신의 경험이 가장 실감있게 구현된 부분은 증언자료집에 실린 증언물들이다. 그런데 증언물에서의 기억은 서술주체의 관점에 따라 재구성된다. 이 ‘증언적 서술’²³⁾에서 체험의 주체인 증언적 서술자는 억압된 기억이 삶에 미친 영향력이라든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복원 의지에 따라 어느 부분은 상세하게, 어느 부분은 소략하게 그 체험을 들려준다. 이처럼 기억이 구성되는 방식은 증언 주체의 의도나 주체성의 성립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성별에 따라 서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재현의 대상, 기억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기억주체의 이해 관심과 기억 행위의 역사적 맥락이 개입하면서 실제 기억내용은 선별되고 재배열된다. 특히 광주항쟁 증언자료집 속의 증언주체인 여성, 소설 속에 그려진 여성들의 경우 투쟁 일지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의 선조적인 전개양상, 항쟁의 종합적인 면모보다는 주변적인 상황, 일상성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더 잘 기억하며, 이 일상적인 것 중심으로 증언을 한다.²⁴⁾ 물론 이처럼 여성들의 대항기억,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들을 주변적인 것, 세부적인 것으로 정식화할 경우 그것이 국가 주도의 공식 기억, 대항 기억 내부의 젠더화된 위계질서를 전복화하는 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기억의 경합과정에서 결락된 부분들을 보충

23) 증언적 서술은 과거의 특정 사건에 직접 참여한 주인공 혹은 증인이 자신의 생애 혹은 유의미한 삶의 경험을 구술하고, 그것이 책 혹은 자료집의 형태로 텍스트화된 것을 뜻한다.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증언적 서술과 기억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줄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허스토리의 문학』, 새미, 2003, 202~3쪽을 참고할 것.

24) 하지만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항쟁의 지도부에 있던 여성들의 기록은 좀더 공적인 맥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해 주는 ‘반동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필자가 음식과 관련한 기억의 재현 양상을 언급하면서 이를 여성들의 기억이 지닌 고유성으로 파악하는 것 역시 기존의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여성을 허여와 모성의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지적은 비단 광주 항쟁 관련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텍스트를 재독해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도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광주항쟁 자체를 해석이 불가능한, 해석을 넘어서는 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도 온당하지는 않다고 본다. 젠더화된 관점에서의 해석과 기억하기는 지금/여기의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여성성의 시각만 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태를 온전하게 기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적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성성이라든가 모성성 역시 지배 담론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여성 고유의 특권적 자질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개별 텍스트마다 어떤 맥락에서 의미화되는지, 어떤 효과를 자아내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좀더 생산적이다.

필자가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본 증언기록물들은 ‘광주민중항쟁 증언록’인 『광주여 말하라』에 실린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의 전춘옥, 「누가 왜 내 아들을 죽였는가」의 송영도, 그리고 정현애의 「광주항쟁과 여성, 역사의 주체로 서다」(『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2-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이다. 그 외에 <전남대 5.18연구소>에서 진행한 증언기록물들 중 여성이 증언자인 경우를 참고하였다. 정현애의 증언이 투쟁일지와 항쟁 이후 구속자 석방 운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반해, 그 외의 증언들은 항쟁 당시 불의의 폭력에 노출되고, 항쟁의 후유증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순수피해자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로 확대되고, 기억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체에 각인된 후유증이 큰 만큼

현재에까지 그 기억은 지속되고 오히려 분노와 원한과 같은 감정이 증폭되고 있다. 때문에 이 집단적인 증언 자료들은 여성 피해자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여성증언자들의 증언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육체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앓는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학살당한 아내, 누이, 어머니로 인해 트라우마를 앓는 가족과 이들의 경험, 항쟁 이후 부상자동지회, 유가족협의회 등 조직활동을 해 온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서 빚어지는 증언의 차이를 살피고, 그런 증언의 자기 구성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일한 증언자를 시기적 낙차를 두고 반복 조사한 것도 아니고, 증언 기록물의 내용이 풍부한 것은 아니어서 이와 같은 작업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국가폭력과 그에 반하는 젠더화된 대항 기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증언자 개개인의 반복 진술을 유도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항쟁 문학/문화 생산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느냐에서도 젠더정치학이 작용하고 있다. 광주를 기억하는 방식은 1980년대 초·중반까지는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내지 수치심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계급적인 관점에 근거해 막연한 ‘민중’이 아닌 ‘각성된 노동자’를 항쟁의 주체로 등극시키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른바 후일담 문학에서 ‘광주’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주체적으로 크게 기여하기보다는 인물의 후면을 장식하는 요소에 불과했다. 그와는 정반대로 임철우의 장편 『봄날』은 광주항쟁을 다큐멘타리에 가깝게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그나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광주를 재현 혹은 기억하는 문학/문화 생산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²⁵⁾

그 중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임철우의 단편 『봄날』, 윤정모의 『밤길』

과 같은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그린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멜랑콜리 내지 비애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정서는 항쟁의 기본정신에서 비껴난 것으로, 계급적 관점이 결여된 소시민적인 것으로 평가받거나, (남성)작가들의 수치심이 투사된 것으로 여성문학 진영에서도 반여성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멜랑콜리 내지 비애감이 남성화된 감정보다는 여성화된 감정이자 기억의 방식이라는 것은 맞다. 또한 애도와 멜랑콜리에 대한 프로이트의 구분대로라면 애도는 세계가 초라하고 공허한 반면, 멜랑콜리는 초라하고 공허한 것이 자아이므로, 자칫 나르시시즘에 기댄 퇴행적인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때문에 자칫 이와 같은 정서를 여성적인 것으로 정식화할 경우 여성(성)을 주변화할 우려가 있고, 항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파악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한 사회적 모더니티, 그리고 사회적 모더니티의 제도적 형식이라 할 수 있는 국가, 그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한 저항의 한 형식이 멜랑콜리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멜랑콜리나 비애는 남성적인 국가 폭력에 대응하는 여성적인 전략의 하나로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²⁶⁾

25)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이미 여러 논자들에 의해 언급된 바 있지만 광주 자체가 1980년대의 사회운동의 고조에 따라 담론화되는 방식이 달랐듯이 사회운동이 퇴조하자 관심사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광주 항쟁이 기억투쟁의 장에서 대항기억이 아닌 국가에 의해 전유되면서 기념의례화된 데 따른 것이다. 즉 광주 자체가 일종의 박물관화 되었을 때 문학이 개입할 자리는 좁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대가 경과하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전국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광주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이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혹은 이 세대들이 주체가 된 문학/문화생산물에서 광주는 다양하게 변주되기가 힘들다. 다양하게 변주되기가 힘들니 상투성에 빠지고, 지속적인 생산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26) 이와 같은 필자의 가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상 텍스트가 좀더 많아야 하고, 치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고는 젠더화된 독법의 다양한 기능

4. 결론

광주항쟁을 다룬 문학/문화적 생산물들을 바라보는 젠더적 시각은 광주항쟁 문학/문화를 좀더 풍성하게 평가하고, 문학사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증언기록물들에 대한 평가이다. 전남대 5.18연구소의 『5.18항쟁 증언자료집』, 광주광역시의 『광주민주화운동자료집』 등은 항쟁 관련 생산물들이 드문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발간되거나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증언은 남성들의 증언과 그 성격이 여실히 다르다. 침묵 당해 왔던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재구성하고, 역사에서 주변화되어 있던 여성들의 활동과 경험을 그들 스스로 말하게 하는 작업은 탈식민 시대인 요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여성이론이나 운동 쪽에서 새롭게 가치화하고 있는 하위 주체 여성들의 말하기 방식이라는 맥락에서 중군위안부들의 증언과 함께 이 항쟁관련 여성들의 증언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작업은 이 하위주체의 말하기 행위에 모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동일한 증언자가 자신의 기억을 말하는 과정에서 증언 텍스트마다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더 천착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도 세심한 고찰을 요한다.

둘째, 기억이 가장 끈질기게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남아있는 곳은 몸이다. 후자는 5월 광주를 홀로코스트에 비견하고 그것이 남긴 트라우마

성을 제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까닭에 자세한 작품분석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다만 작가나 작중인물의 성별이 아닌 텍스트의 성별이라는 차원에서 이 작품들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아울러 이런 새로운 해석이 곧 작품의 성취도나 문학사적 의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혀둔다.

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가폭력이 여성의 몸에 가한 억압과 야만의 기억을 좀더 세심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실에 가까운 증언물과 허구의 산물인 문학/문화 텍스트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텍스트를 회통가능한 것으로 재배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일종의 담론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몸의 기억, 몸에 가해진 폭력을 언어화하는 일은 여성이 진술하는 적극적인 대항기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항기억으로서의 몸의 기억은 증언물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가르는 주요한 준거²⁷⁾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작업이 ‘배제되고 전유된 여성의 몸’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 이 몸이 말하는 저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언물이라든가 문학작품에서 동일한 증언자, 동일한 작가가 자신의 기억을 재현하더라도 다양한 차이와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차이와 균열은 작가 그리고 증언자가 처한 개인적 상황, 사회적 맥락, 담론이 이루어지는 환경 등에 의해 빚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한다면 다소 단성적으로만 진행되어 온 광주항쟁 관련 문학/문화 생산물에 대한 연구를 다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항쟁과 항쟁 이후에 대해 여성으로 말하기는 애초의 저항성을 상실한 채 최근 기념의례화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에 대한 항의의 양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남성중심의 형제애의 발현으로 항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을 대항기억을 주도한 ‘집단정체성’의 장으로 불러내는 데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27) 물론 남성들의 경우에도 부상, 고문 등으로 인한 육체적 후유증, 정신병 등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그 후유증이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적인 성징의 훼손, 불임 등으로 나타나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강고함, 가족 내에서의 고립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남성들의 몸의 기억과는 변별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아, 「5.18 민중항쟁 역사의 양면성 : 여성의 참여와 배제」, 『여성·주체·삶』,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 2000.
- 공선옥, 『피어라 수선화』, 창작과비평사, 1994.
-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허스토리의 문학』, 새미, 2003.
- 백낙청,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 『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비평사, 1990.
-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이광영·전춘심 외, 『광주여 말하라 : 광주민중항쟁 증언록』, 실천문학사, 1990.
- 장하진, 「5.18과 여성」,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편, 『5.18 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2001.
- 전진성,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역사비평』 76호, 역사비평사, 2006 가을.
- 정근식·김무용·김명섭·문부식, 「좌담 : 광주20년-국가의 기억, 민중의 기억」, 『당대비평』 11호, 생각의나무, 2000.
- 황종연, 「탈승화의 리얼리즘-윤성희와 천운영의 소설」, 『문학동네』, 문학동네, 2001 가을.
- 홍희담, 『깃발』, 창작과비평사, 2003.
- Marianne Hirsch, Valerie Smith. "Feminism and Cultural Memory: An Introduction," *Signs* Vol.2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Spring
- 5.18 기념재단 <http://www.5.18.org>
- 전남대 5.18연구소 <http://altair.chonnam.ac.kr/~cnu518>

Abstract

Literature and Culture after the Kwangju People's Struggle

- the politics of re-reading based on the gender

Kim, Yang-sun

This thesis intends to look at the literary/cultural text about Kwangju people's struggle in the context of the construction of 'collective identity' based on the 'communal memory'. 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as gender in the collective and individual trauma, in the memory can be the available viewpoint when we approach the literature/culture about Kwangju struggle.

The literary/cultural materials of Kwangju struggle is a kind of counter-memory. In the process of memory struggle, 'the gender' is appropriated as the absence or as the dramatic representation of male community's struggle. The woman's role and experience during the period of struggle or after the struggle has not been said. And the shame of the survivor—the man has been represented through the figuration of 'sister' or 'mother'. All of these are related with the gender politics.

Therefore the memory related with the Kwangju struggle must be accepted as the 'made tradition' for strengthening the identity of that group. The gendered cultural memory have to be interpreted, too. The part that the women's memories are embodied realistically is the testimony material. In the case of women, the circumference situations

and daily life episodes are more memorizable than the total aspects of the struggle. The testimonial material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collective identity' of a victim-woman.

To make the memory of body into the language or discourse can be the positive counter-memory. And it can be the criterion which divides male's experience into woman's experience in the testimony as well as the literary production.

To speak as the woman about the struggle and post-struggle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woman as the subject, 'collective identity'.

Key words : counter-memory, gendered cultural memory, the testimony material.
Kwangju struggle, the memory of body, the speaking as the woman

■ 본 논문은 4월 30일 투고되어 5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